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IGER LILY
가제 : 타이거 릴리
저자 : Jodi Lynn Anderson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3년 7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영화 제작 예정(넷플릭스), 라이언 게이트 텔레비전에서 시리즈 제작 옵션 계약
- * 영국, 브라질, 루마니아,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 “공감 능력을 지닌 톱커벨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들여다보는 이 개작 소설에는 후회, 외로움, 잃어버린 사랑이 배어 있는 비극적 요소가 진하게 담겨 있다. 친숙한 캐릭터들이 기존에 알던 것보다 더 크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섬세하게, 열정적으로 그려져 마음을 사로 잡는다.” – 「북리스트」

소설 원작보다 초록색 옷을 입은 장난꾸러기 소년과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작은 요정이 더 익숙한 피터팬. 1902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J. M. 베리가 탄생시킨 늑지 않는 아이의 대명사 피터팬과 후크 선장, 웬디 등 주변 인물들은 수많은 소설로 각색되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피터팬에게도 네버랜드에도 그 대표적인 이미지처럼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Peaches』의 작가는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기지도 않고, 순수함과 아주 거리가 먼 소년과 소녀들이 등장하는 새로운 피터팬의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들려준다. ‘잃어버린 소년들’의 리더로 네버랜드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곳, 접근 금지 구역으로 공공연히 알려질 정도로 가장 외진 숲 속에 머무는 피터팬, 그리고 해변 근처에서 카사바 나무를 키우고 낚시를 하며 살아가는 종족 ‘하늘 먹는 자들’의 주술사가 데려다 키운 딸 타이거 릴리의 러브스토리를 톱커벨의 시선에서 따라가는 이 독특한 이야기는 원작 소설의 등장인물들 중에서도 거의 주목 받지 못한 타이거 릴리의 심적 변화와 성장기가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인어, 요정, 해적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들이 그대로 등장하면서도 자연 속에서 야생 동물처럼 살아가는 원시적 삶과 문명의 탄생, 성 차별과 권력을 향한 탐욕의 문제가 두 사람의 엇갈린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깊이를 더한다.

네버랜드 곳곳을 날아다니는 요정들은 말을 못하는 대신,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과 진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늘 먹는 자들’의 마을에서 지친 날개를 자주 쉬어가곤 하던 톱커벨은 마을의 주술사, 퍽톡의 양녀 타이거 릴리가 짓곳은 동네 아이들과 당당히 맞서

는 모습을 보고 그 범상치 않은 기운을 처음 알아차린다. 참나리(타이거 릴리) 근처에서 틱톡에게 발견되어 딸이 된 이 당찬 소녀는 어느 여자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어릴 때부터 마을 어른들의 잔소리를 들었다. 날카로운 칼을 빼 들고 온 얼굴이며 웃이 엉망이 되도록 수풀 속을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고 낚시도 하던 소녀는 덩치가 훨씬 큰 사내아이들보다 월 해도 실력이 월 등했다. 누가 놀리거나 못살게 굴어도 절대 기 죽는 법이 없는 타이거 릴리에게 호기심을 느끼다 열성적인 팬이 된 텅커벨은 소녀가 열다섯 살이던 어느 날, 가끔 네버랜드를 찾아오던 영국인들의 배 한 척이 난파된 채 바닷가에 당도한 것으로 시작된 중대한 사건도 모두 지켜본다. 정확히 언제가 될 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네버랜드 사람들은 일생 중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나이가 들지 않고 그 나이로 영원히 살아가는데, 외부 사람들은 무조건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 한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는 그 ‘노화의 병’이 옮을까 두려워 절대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난파 선이 발견된 날, 크게 다친 남자가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도 모두 모른 척 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유 없이 남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꼴은 절대 못 보는 타이거 릴리는 틱톡을 비롯한 마을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러 나서고, 그 날밤 피터팬과도 처음 만난다.

타이거 릴리는 여태 만난 그 어떤 소년과도 다른 피터팬에게 곧바로 마음을 빼앗긴다. 계산 할 줄 모르고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움에 끌려 그가 이끄는 소년들과 함께 지내고 싶지만 네버랜드 전체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들로 모두 두려워하는 이 집단과 함께하고픈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 틱톡의 은밀한 거래로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해야만 하는 약혼자가 생긴 것이다. 자유와 권력, 충성, 책임감에 대한 서로의 가치관도 자꾸만 부딪혀 두 사람이 갈등을 겪는 동안 영국에서 웬디라는 이름의 소녀가 등장하면서 피터팬과 타이거 릴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외모부터 성격, 모든 면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웬디의 존재에 타이거 릴리는 뜨거운 질투를 느끼고, 응답 받지 못한 사랑의 감정은 비극적인 결과를 예고한다. 술주정뱅이 후크, 연쇄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이상자 스미,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공존하는 틱톡,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인어 등 개성 넘치는 주변 인물들은 아름답고 반짝이는 섬이 아닌, 모기가 들끓고 악어 떼가 우글대는 늪 지대가 곳곳에 포진한 배경과 더불어 원작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타이거 릴리와 피터팬, 웬디의 관계를 모두 지켜보고 속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지만 말을 할 수 없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텅커벨의 시선을 따라가는 점도 연신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저자 소개>

조디 린 앤더슨(Jodi Lynn Anderson)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Peaches』와 『May Bird』 3부작을 쓴 작가다.

제목 : THE ACADEMY
가제 : 군인이 된 패셔니스타
저자 : Katie Sise
출판사: Balzer + Bray
발행일: 2018년 5월 22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사고만 치다가 사관학교에 억지로 입학한 패셔니스타의 좌충우돌 성장기

교과서 대신 패션 잡지, 코 앞에 닥친 시험보다 일일 조회수만 1만 회가 넘어가는 패션 블로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에게 전부 똑같은 제복을 입고 피부 관리에 절대 도움 안 되는 거친 훈련이 줄줄이 기다리는 사관학교는 그야말로 지옥일 것이다. 패션 아카데미 지망생, 서른 살 전에 최정상 패션 잡지 에디터가 되고 말겠다는 야심 찬 프랭키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일찍부터 깨달은 적성과 흥미를 십분 발휘해온 고등학교 생활은 프랭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전혀 아니었다. 꿈을 이룬다는 핑계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너버린 프랭키는 군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꿈에도 상상해본 적 없는 유니폼의 세계, 새벽 5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고된 훈련은 물론 ‘군사 전략’ 같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곳으로 끌려가지만, 지옥이나 다름없던 그곳에는 다른 의미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곳은 진한 우정을 넘어서는 동지애와 소속감이 있는 곳이었고, 프랭키에게 최신 유행 트렌드를 알아맞히는 것보다 훨씬 큰 뿌듯함과 자부심을 선사한다.

엄마아빠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나도 아닌 여러 개 저지르고 심지어 프랭키 자신조차 용납하기 힘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미 패션 아카데미는 저 멀리 물 건너 갔는지도 모른다. 다섯 살 어린 여동생과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만 알리고 형편 없는 학교 성적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쓴 에세이와 학교에서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꽤 많은 인기를 누리온 패션 블로그에 관한 정보까지 담아 입학 원서를 내버린 프랭키는 오매불망 합격 통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사이, 부모님이 알면 기절초풍할 만한 일을 두 가지나 추가로 저지르고 말았다. 연말에 가족들이 모두 친척을 만나러 멀리 간 사이 집에 학교 친구들을 불러다 파티를 벌였고 다들 물병에 술을 어찌나 꼼꼼히 챙겨 왔는지, 그저 ‘친목 도모’만 하려던 프랭키의 계획과 달리 파티는 ‘성인 보호자가 한 명도 없는 음주 파티’가 되고 말았다. 여기까지도 이미 부모님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었겠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또 하나 있었다. 학교 시험에서 컨닝을 한 것이다.

프랭키는 머리가 나쁜 아이도 아니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만해도 우등생이었다. 이후 패션계에서 일해야겠다는 확고한 장래희망이 생기고 블로그가 큰 인기를 끌면서 과제며 시험은 자연스레 뒷전이 되고 말았다. 화학 시험을 앞둔 그 날만 해도 분명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또 새로운 포스팅에 심취해버린 상태였고, 꼭 외웠어야 할 내용이 전혀 채워

지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러 간 프랭키는 같은 반 친구의 시험지가 아주 대놓고 코 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홀린 사람처럼 답을 다 베끼고 말았다. 나중에야 프랭키는 가장 싫어하는 속임수에 거짓말을 저지른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깨달았지만, 시험지를 보여준 친구나 화학 선생님 모두에게 이미 들통이 나고 말았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건, 규칙은 그렇게 마음대로 어기면서 사는 것이 아님을 자식이 제대로 깨닫길 바랐던 부모님은 곧장 사관학교에 신청서를 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던 할아버지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특별 전형으로 면접 시험 없이 프랭키를 사관생도로 받아들였고, 입학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이힐, 수백 가지 메이크업 도구들, 패션 잡지도 없고 철마다 유행하는 컬러로 머리를 염색할 수도 없는데다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프랭키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늘 참신하고 세련된 패션으로 주목 받았던 생활에 익숙한 프랭키는 자신에게 아예 관심도 없는 동기 생도들의 차가운 반응에 일단 놀라고, 공부해야 할 과목들이 일반 고등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다 학습량이 엄청나다는 사실에 더 놀란다. 게다가 아침저녁으로 신체 훈련도 이어지고,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쟁 게임’이라는 이상한 시험을 벌여 생도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다. 원래 즐기던 일을 못 하는 것만으로도 절망적인데 이런 관심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일과를 꾸역꾸역 해내느라 기절할 지경이 된 프랭키에게 룸메이트 조니는 유일하게 신경 써주고 해야 할 일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한 줄기 희망이 된다. 프랭키는 어떻게든 이 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자는 딱 한 가지 생각만으로 이를 악물고 조니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간다. 불가능해 보였던 군사 훈련과 수업을 겨우 따라가던 어느 날, 프랭키는 전체 생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짝 왓슨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군인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은 짝을 보면서 징징대기만 하고 빠져나갈 구멍만 자신이 진심으로 부끄러워진 프랭키는 조니 덕분에 알게 된 속 깊은 동기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척’ 했던 사관학교 생활을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한다. 혼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남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서로를 목숨처럼 아끼며 함께 하는 삶의 가치를 비로고 깨달은 프랭키는 잠시 미뤄야 했던 꿈도, 그리고 늘 혼자 직진하느라 실패하기만 했던 사랑도 모두 거머쥌 수 있는 지식이 이 고된 훈련과 엄격한 규율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간다.

보석 디자이너 겸 YA 소설가로 활동 중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군인 출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유쾌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이티 사이스(Katie Sise)는 보석 디자이너이자 방송 진행자, 작가로 활동해 왔다. YA 소설 『The Boyfriend App』, 『The Pretty App』과 기업가로서의 커리어 개발 요령을 소개한 논픽션 『Creative Girl: The Ultimate Guide for Turning Talent, Creativity into a Real Career』를 썼다.